

과학출판은 두말할 것 없고 국내 공학 분야 출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이기준)이 과학출판 지원사업을 추진해 출판계에 잔잔한 미담美談을 놓고 있다. 지원금을 받아 출간된 책만도 이미 17권. 21세기를 지배하는 10대 공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부터 각자의 영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한국 여성 엔지니어들의 이야기까지 공학으로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책들을 펼쳐보면 이 지원사업이 결코 한시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다. 지원사업을 이끌고 있는 삼두마차는 최향

순 교수(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한국공학한림원 출판위원회와 과학문화연구소장 이인식 씨, 선임행정원 이유정 씨 등이다. 미담의 주인공들 중 최향순 교수와 이유정 씨는 얼마 전 지원금으로 출간된 또 한 권의 책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를 펼쳐보면서 지원사업의 성과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2001년도에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처음 제공한 분은 한국공학한림원의 김수삼 부회장이었지요. 김 부회장이 공학발전을 위해 출판사업 지원을 해보

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고 1차년도 기획에서 발간까지를 진행했습니다. 또 과학전문 저술가인 이인식 씨가 지원사업설계 및 책 기획에 도움을 많이 주셨지요.”

이 지원사업은 단순히 자본만 대는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출판계의 이슈다. 한국공학한림원측은 권당 약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책의 기획과 필자 선정까지 책임지면서 과학출판물의 완성도까지 신경을 쓴다. 돈만 내놓고 손 떼는 차원이 아니라 출판사측이 안고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부담 - 기획부터 적절한 필

공학출판 대중화 위해 지원군 자청합니다

공학출판 지원사업 펼치는
한국공학한림원 출판위원장 최향순 & 선임행정원 이유정



자를 선정하는 일까지 - 을 함께 깊어짐으로써 콘텐츠의 질적 담보에도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출판위원장인 저는 2차년도인 작년 부터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이인식 씨는 지금까지도 ‘기획’ 부분에서 마스터플래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인식 씨는 번역서를 검토한 후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기획에까지 온 신경을 쓰고 있지요. 또 번역을 해줄 전문필자 발굴에도 큰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기획자, 필자선정자, 출판사 섭외자 등 진행업무가 특정 사람에게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출판위원회(최 교수를 비롯 공학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9명으로 구성)와 이인식 씨, 이유정 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후 그것을 확장시키는 회의를 거듭한 끝에 책으로 완성시켰으니 지금까지 나온 책은 이들 모두의 공동작업물이나 다름없다. 또 서점에서 홀대받기 일쑤인 공학도서를 출판하겠다고 나서주는 출판사측의 열의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이 이처럼 공학도서 출판에 열의를 보이는 것은 ‘공학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국내 공학기술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모인 곳입니다. 공학기술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성된 특수 법인이지요. 국내 우수한 공학인을 발굴하고 공학기술의 대중적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도 그 일부입니다. 막연히 공학분야의 도서를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학도서이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책을 내자는 것이지요. 최근 들어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외면한다고 하잖습니까. 어릴 때부터 공학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줘야 하는데 그런 문화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획된 책 중 <공학과와 새로운 만남>시리즈 1차분은 김영사에서 출간됐고 이 시리즈의 2차분은 생각의나무에

서 일부 출간되었으며 나머지 몇 권은 현재 출간준비중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지원금은 김영사의 경우 9권에 약 9천만 원, 생각의나무에는 8권에 1억 원 수준으로 결코 만만한 액수는 아니다.

“<공학과와 새로운 만남>에 투입된 지원금은 해동전자기술진흥재단(회장 김정식)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매년 공학발전에 써달라며 보내주시는 지원금이 있는데 아무래도 출판분야에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을 벌인 것이죠. 결국 한국공학한림원만이 아니라 공학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뜻이 담긴 일이니 출판사 선정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공학한림원측은 서점에서 나가 국내에서 출간된 과학, 공학도서를 직접 검토한 후 적절한 출판사를 찾고 섭외하는 데도 공을 들인다. 행정적인 과정을 도맡아 진행한 이씨는 “당장 수익이 나는 일이 아니니 이 제안에 선뜻 마음을 열지 않은 출판사도 있었는데 다행히 몇 출판사가 이 분야 출판에 관심을 가졌다”며 진행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털어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 중 하나가 공학전문 필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련분야 교수들은 논문형식의 글은 써줄 수 있지만 고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글쓰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 필자들이 함께 원고를 집필할 경우 주제를 하나로 통일하고 원고를 균질화하는 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한 책을 읽고 공학도를 꿈꾸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소명감을 갖게 되죠.”

한국공학한림원의 업무가 이쯤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씨를 비롯해 출판위원회는 출간된 책이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 계량화한다. 그래야만 더 좋은 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씨는 대중공학서적으로 소개된 책이 몇 달 지나지 않아 전문공학서적 서구나 기술서적 서가에 꽂히는 걸 보면, 서점 직원을 붙들고 교양공학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일장연설’에 나서기도 한다.

“흔히 밥을 먹으면서 이 쌀을 생산해 낸 농부들에게 감사하자고 말하는 것은 잘 하는데 수도물을 쓰면서 혹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공학자들에게 감사하자는 생각은 하지 않잖습니까. 공학이라는 게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출판물을 통해 그런 중요성부터 깨닫게 되었으면 합니다. 출판 지원사업이 올해로 3년째이니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시책향오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저자 발굴에도 노력할 겁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올해도 <공학과와 새로운 만남>시리즈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해 기획한 <월드 베스트>출간도 준비중이다. 이 시리즈는 제목 그대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각 분야에서 세계 1등 상품으로 불리는 월드 베스트 공학산업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이 외에도 계속해서 출판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엔지니어는 많은데 책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공학출판분야에 대중적인 관심이 확장되길 바란다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대상 공학시리즈까지 내고 싶다는 한국공학한림원의 신선한 행보를 눈여겨 볼 일이다. ✚

취재 김정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